
碩士學位 請求論文

韓國語와 英語의 音節 比較 研究

指導教授 金 順 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 專攻

孫 裕 遠

1990年度

韓國語와 英語의 音節 比較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孫 裕 遠

指導教授 金 順 澤

1990年 月 日

孫裕遠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審查委員: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黃彥澤



副審

金順澤



副審

金鍾勳



1990年 月 日

차 례

I. 序 論	1
A. 研究目的	1
B. 研究方法 및 範圍	2
C. 研究順序	2
II. 理論的 背景	4
A. 對照分析의 必要性	4
B. 子·母音群 對照分析의 必要性	5
III. 韓國語와 英語의 音節構造	8
A. 韓國語의 音節構造	8
B. 英語의 音節構造	12
IV. 學習上의 問題點	21
A. 插入母音 現象	21
B. 插入母音의 特性	23
V. 指導 方案	27
A. 調音 音聲學的 指導	27
B. 分節法 指導	31
VI. 結 論	36
參 考 文 獻	39

I. 序 論

A. 研究目的

외국어 학습에 있어 문제가 되는 커다란 요인은, 이미 모국어의 音韻組織과 文法構造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모국어의 습관을 그대로 전이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은 학습대상어인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의 音韻體系와 文法組織에 맞추어 영어의 音韻體系와 文法組織을 습득한다.

언어습득의 적기가 되는 나이를 이미 지난 뒤에 배우는 目標言語(target language)인 영어는 母國語(native language)인 한국어와의 차이로 인하여 간섭(interference) 현상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학습상의 문제점들이 여러 분야에서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교사는 목표어와 모국어를 서로 명확히 비교·검토하여 두 언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학생지도의 유용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harles C. Fries(1945)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the teachers, to be most effective, must know, linguistically(not necessarily practically but “descriptively”), the native language of the students they teach. Such knowledge is not for the sake of practically using that language in the classroom but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the precious nature of the difficulties with which the students are struggling.¹⁾

또한 梁東暉(1986)도 올바른 영어발음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와 영어의 音聲 및 音韻體系를 비교·분석하여 발음상의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실제 발음지도에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²⁾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와 영어의 音韻組織 중에서 특히 두 언어의 音節構造를 대조·분석함으로써, 그 音節構造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학습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1) Charles C. Fries,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1945), p. 9.

2) 梁東暉, 「英語音聲學」(서울: 汎韓書籍, 1986), p. 52.

알아 보고, 그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밝혀보는데 있다.

B. 研究方法 및 範圍

한국어와 영어의 音節構造上的 차이를 비교하고 학습상의 난점을 찾아 그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아직도 외국어 교육에서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對照分析(contrastive analysis)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分節音이 音聲적으로 단어 내부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음지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어경계를 가로지르는 子音群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보겠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그 순서상 어디까지나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子音과 母音의 連結體를 검토한 후에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기서는 단어 내부의 分節音 連結體를 비교하여 학습상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학습대상어인 영어의 경우, 대부분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민영민의 2인: *High School English*, 시사영어사, 1989) 1·2·3학년 교과서의 단어중에서 子音과 母音의 연결관계를 조사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영어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형의 音節組織을 찾기 위해 가능한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검토하고, 거기서 찾지 못하는 음절구조는 2학년 교과서에서,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은 3학년 교과서에서 찾아 分節音 배열관계를 포착하려고 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영어 발음지도에 꼭 포함되어야 할 단어들은 일반 학술서적에서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C. 研究順序

전술한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자는 6개 장으로 이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대조분석의 필요성과 그 효용성을 살펴보겠으며, 특히 한국어와 영어의 子音群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音節構造를 서로 비교해 보겠다. 두 언어의 音聲層位에 나타나는 子音과 母音의 連結體를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밝혀보기로 하겠다.

제4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音節構造의 차이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시해 보겠다. 한국어의 音節構造에 익숙한 학생들이 영어 子音群을 발음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지적된 학습상의 난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音聲學的 측면과 分節法的 측면으로 나누어 그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앞에서 논한 바를 다시 한번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A. 對照分析의 必要性

대조분석의 첫 시도는 構造主義 言語學 이론을 철저히 받아들인 Lado(1957)의 *Linguistic Across Cultures*에서 비롯된다. 외국어 학습자가 모국어 습득 후 새로운 언어습관을 기르는 데에는 각 두 언어의 특유요소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며 두 언어간의 구조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학습상의 난점이 더욱 커지므로 두 개별언어를 비교해야 한다는 가설에 입각한 것이다.

대조분석 옹호론자들은 두 언어의 音韻組織, 文法構造, 語彙, 文化 등을 비교·분석하여 학습상의 문제점을 진단 추정하고, 이 비교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교재편찬, 학습지도, 시험문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두 언어 비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Banthy *et al.* (1966)는 *Trends In Language Teaching*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a foreign language course is making a contrastive statement about the two language and cultures involved. Such a comparison will furnish the target elements as to difference, difficulty, significance, and degree of control must be made. The selection of target element for a particular lesson must be identified, and recommendation made for attacking such problems.³⁾

또한 Charles C. Fries(1945)도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 …… the most efficient materials are those that are based upon a scientific description of the language to be learned, carefully compared with a parallel description of the native language of the learner……⁴⁾ 라고 말하면서 효과적인

3) Bela Banthy, Edith C.Targer & Carl D.Waddle,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66), p. 55.

4) Charles C.Fries, *op. cit.*, p. 15.

교재는 학생의 모국어와 학습대상어의 對照分析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시 학생들이 겪게 되는 난점(troubling spots)을 미리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발음지도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두 언어의 대조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대조분석의 교육적 효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모국어와 학습대상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밝혀지게 되며, 이 차이점으로 생겨나는 학습상의 난점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子·母音群 對照分析의 必要性

영어의 音韻體系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나, 모국어와는 다른 分節音 배열이 적지 않은 난점을 가져다 준다. 발음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分節音體系가 학습상으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마다 특이한 子音과 母音의 連結體가 보다 더 큰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Prator & Robinett(1985)는 학습자들은 언어음을 발음할 때 그 음이 단독으로 놓여 있을때 뿐만 아니라 단어나 문장속의 다른 음들과 서로 관련하여 나타나는 위치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sounds can be difficult for language learners to pronounce not only because of the way they are formed when they stand alone, but also because of the position they occupy in relation to other sounds in words or sentences.⁵⁾

특히, Charles C. Fries(1945)는 언어마다 상이한 음의 연결체(sound sequence)나 또는 그 배열이 외국어 학습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여러가지 음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또한 그 음이 모여 이루어지는 子·母音群을 찾아내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⁶⁾

5) Clifford H. Prator, Jr. and Betty W. Robinett,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5), p. 173.

6) Charles C. Fries, op. cit., p. 15.

또한 Lado(1964)는 발음문제를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서 **音의 連結體**가 어떤 위치에 나타나는지를 고려해야 되며, 그 문제점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학습대상어와 모국어의 **音의 連結體** 및 **位置分布**를 비교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It is obvious that we must consider the distributional positions of sound clusters in order to analyze adequately the pronunciation problems involved in them.

In summary then, to locate and describe sequence problems, we compare the sequences and the positions in which they occur. When the native language does not have a sequence, or when a sequence does not occur in a position in which it does occur in the foreign language, we will have located a problem.⁷⁾

따라서 발음시 **子·母音群** 연결체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가를 용이하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개별언어의 **音素配列**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검토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외국어에 허용되는 **音의 連結體**를 목록화하고 그 **連結體**가 모국어에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발음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어의 **子·母音 連結體**에 나타나는 문제도 결국은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 다른 **音素** 배열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명확히 밝히겠지만, 한국어에는 **音聲階層**에서 **音節初**, **音節中間**, **音節末**의 어느 위치에서건 **子音群**을 허용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音節初**의 위치 (initial position)에는 자음이 3개, **音節末** 위치 (final position)에는 자음이 4개까지 연결되어 한국어와는 다른 **子音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언어의 **子音連結體系** 차이로 인하여 모국어의 **音節構造**에 익숙해진 한국 학생들은 영어의 **子音群**을 발음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子音群**을 발음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子音** 사이에 불필요한 **母音**을 삽입시켜 한국어식 **音節構造**로 만들어 발음함으로써 발음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음절의 영어 단어인 strength,

7)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pp. 18~19.

task의 발음을 각각 [sitireŋθi], [tæsiki]로 발음함으로써 4음절, 3음절로 음절수를 늘려 발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음상의 오류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언어의 音節構造를 대조·분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子音連結體系를 분석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상이한 子音連結體系에서 발생하는 발음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Ⅲ. 韓國語와 英語의 音節構造

한 언어의 音節構造는 音節이란 단위를 音聲的인 차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音韻論的 차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音聲層位에 나타나는 구조와 기저차원에 나타나는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音韻계층에서는 자음군이 허락되지만 音聲계층에서는 탈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계층에서의 音節構造는 다를 수밖에 없다.

본고는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한국어와 영어의 音節構造 차이로 인해 어떤 점이 학습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궁극적으로는 영어 발음의 효과적인 지도법을 모색하는데 주된 뜻이 있으므로, 音聲階層의 音節構造만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음성상에 나타나는 音節組織을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A. 韓國語의 音節構造

먼저 한국어를 구조주의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許雄(1987)은 한국어 음절조직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시키고 있다.

(1) 한국어의 음절구조 : C_i V C_f

여기서 C_i는 音節初子音을, V는 音節核音을, C_f는 音節末子音을 의미한다.

[C_i]위치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으나 대체로 19子音이 다 올 수 있다.⁸⁾ [V]의 위치에는 10개의 單母音과 12개의 重母音이 올 수 있다. [C_f]의 위치에는 7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이 관계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許雄(1987)은 음절초 위치에 /ŋ/과 /l/은 쓰일 수 없으며,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ŋ/만이 나올 수 없고, /l/은 /l/이외의 다른 자음 밑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종이'를 실제적으로 'co-ŋi'로 음절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ŋ/이 음절초 위치에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宋喆儀(1982)를 참조할 것.

(2) a) C_i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

p(ㅍ)	t(ㄷ)	c(ㅊ)	k(ㄱ)
p'(ㅍ')	t'(ㄷ')	c'(ㅊ')	k'(ㄱ')
p ^h (ㅍ ^h)	t ^h (ㄷ ^h)	c ^h (ㅊ ^h)	k ^h (ㄱ ^h)
	s(ㅅ)		h(ㅎ)
	s'(ㅅ')		
m(ㅁ)	n(ㄴ)		ŋ(ㅇ)
	l(ㄹ)		

b) V위치에 올 수 있는 모음

i(이)	y(위)	ĩ(으)	u(우)
e(에)	ϕ(외)	ə(어)	o(오)
ε(애)		a(아)	
je(예)		jə(여)	ju(유)
jε(애)		ja(야)	j o(요)
wi(위)			
we(웨)		wə(워)	
wε(웨)		wa(와)	
ij(의)			

c) C_f위치에 올 수 있는 모음

p	t	k
m	n	ŋ
l		

물론 C_i와 C_f의 정확한 내용은 음절초와 음절말 위치에 나타나는 자음의 수가 0에서 1까지란 뜻이다. 그러므로 국어의 음절구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보인다.

C_i=1, C_f=1인 경우 : CVC 예 : 감

$C_i=1, C_f=0$ 인 경우 : CV	예 : 나
$C_i=0, C_f=1$ 인 경우 : VC	예 : 알
$C_i=0, C_f=0$ 인 경우 : V	예 : 이

이를 더 간략히 표시하면 국어의 音節構造는 (C)V(C)와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자음이 괄호속에 포함된 것은 한국어의 경우 音節初와 音節末에 자음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임의적 또는 선택적(optional)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許雄(1987)은 音節構造를 音聲的 階層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어의 경우 音韻的 차원에서는 자음군이 허용되지만 音聲的 차원에서는 자음군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어의 音節組織을 音聲的 계층으로 보고 있는 경우는 Kim & Shibatani(1976)와 金淇燮(1977)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轉移音(glide)을 V 앞에 위치하는 음으로 보고 $\$(C(G)V(C))\$$⁹⁾라는 表面音聲制約(surface phonetic constraint)을 설정하여 音節組織을 파악하고 있다. 이 제약은 한국어의 音節構造가 갖는 音聲的 차원에서의 適形條件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의 音節構造는 括號表記規約의 해석에 따라 '광'[Kwag]이나 '격'[kjək]과 같이 CGVC를 전부 갖춘 음절이나, '아'[a]와 같이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音節을 포함하여 音聲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3)	$\$CGVC\$$	광
	$\$CGV\$$	휴
	$\$GVC\$$	약
	$\$CVC\$$	작
	$\$CV\$$	자
	$\$GV\$$	야
	$\$V\$$	아
	$\$VC\$$	악

9) 여기서 $\$$ 는 음절경계표시(syllable boundary marker)를 나타낸다.

이밖에 한국어의 다른 音節構造는 Kim-Renand (1978)에서 나타나고 있다.

(4) S → (Initial) Medial (Final) (S=syllable)

Initial → C⁰

Medial → { (G)V
iy }

Final → C(C)

위 音節構造는 한국어의 音節이란 同音異意語(homonym)인 한자어 意, 議, 依를 제외하면 하나의 모음으로 구성되거나 轉移音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音節初에는 /ŋ/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오고 音節中間에는 轉移音과 모음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모음만으로 혹은 /iy/로 이루어지며, 音節末에는 자음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위치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音節構造는 音聲的 表面에서의 音節構造인지 音韻的 次元에서의 音韻構造인지 관점이 명확하지 않다. 국어의 音節末에 子音群을 허용치 않다는 점에서는 表面音聲構造를 주장하는 듯하나 基底形을 설정하여 表面形을 유도할 때 그 유도과정에서 /ŋ/도 어두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¹⁰⁾ 音韻的 音節構造를 중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유형의 音節構造를 살펴볼 때 한국어의 적형적인 음절구조는 音韻的 階層에서는 CGVCC의 구조를 취하게 되지만 音聲的 階層에서는 CGVC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다시말해 우리말의 '벼'와 '곽'을 각각 [pje]와 [kwak]으로 발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轉移音을 자음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C)(G)V(C)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 음성적 音節構造를 좀더 공식화시키면 한국어의 音節構造를 C! G! V C!의 형태가 된다. 물론 이 구조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상에서 音節初와 音節末에는 각각 자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음이 오게 되면 하나의 자음만이 위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10) 이에 대한 예는 '부모성의를'이란 한국어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pu-moɕsəŋ-iy-lɨ#
\$pu-mo\$ŋ-iy\$HIS
\$pu\$mo\$ŋ\$ɨ\$HIS

B. 英語의 音節構造

영어의 음절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構造主義 言語學의 音素配列論(phonotactics)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音素配列論이 주된 관심은 음절안에서 音素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¹¹⁾ 다시말해 음소들이 각 위치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검토하면서 음소들의 어떤 결합이 가능한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쏟는다. 따라서 영어의 음절조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음절내부에서 音素의 배열관계를 검토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본절에서는 영어의 음절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난 단어내부의 음소배열을 통해 고찰해 보겠다.

그런데 영어의 음소배열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언급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영어의 음소배열에 관한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학자들마다 음소배열의 내용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Algeo(1978)에 의하면 音素配列을 연구한 16명의 학자들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音節初에는 107개의 가능한 子音群이 나타나는데 그중 1/3에 못미치는 30개의 子音群만이 서로 동일하고 나머지 77개의 子音群은 분석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音節末에서는 500개 이상의 子音群이 가능한데 그중 겨우 4%에 해당하는 19개만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¹²⁾ 예를 들어 音節初 子音群만 보더라도 Bloch & Trager(1942)는 48개의 子音群을 제시하고 있으며¹³⁾, Fries(1945)는 39개의 子音群만 허용하고 있다.¹⁴⁾

이처럼 자음군에 대한 분석이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이유는 Algeo(1978)의 지적처럼, 그 가능한 자음군(possible cluster)에 대한 개념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자료분석방법의 차이, 방언의 차이, 분석하는 어휘 성격의 차이, 문법적 단위의 차이 등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Gimson(1980)과

11) 더 자세한 것은 O'Connor의 *Phonetics* (1973) 제7장을 참조할 것.

12) John Algeo, "What consonant clusters are possible?" (*Word*, 9, 1978), pp. 206~224.

13) Bernard B. and George L. Trager,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41), p. 49.

14) Charles C. Fries, *op. cit.*, p. 15.

田相範(1985), 金鍾勳(1988) 등은 영어의 음소배열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분석하는 단어의 성격, 방언의 차이, 成節的 자음관계, 굴절어미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의 音素配列制約을 검토하고 있는 학자들간에 이같은 세부적인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은, 音聲的 層位에서는 영어의 음절이 모음을 중심으로 音節初에는 3개의 자음을 허용하고 音節末에는 4개의 자음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音節의 核(nucleus)을 이루는 모음을 기준으로 그 앞의 음을 音節前部(onset)라 하고 그 뒤의 음을 音節後部(coda)라고 부를 때 영어의 音節前部에는 0내지 3개의 자음이, 음절후부에는 0내지 4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이 관계를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C⁰VC⁴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 구조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단어들을 짜맞추면 영어의 音節構造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音素配列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음절내의 위치 예	음절전부 (onset)			음절핵 (nucleus)	음절후부 (coda)			
eye				ai				
rye			r	ai				
frame		f	r	ei		m		
ate				ei		t		
spread	s	p	r	e		d		
spite		s	p	ai		t		
bank			b	æ		ŋ	k	
tempt			t	e		m	p	t
tempts			t	e		m	p	t s

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더욱 자세히 하기 위하여 음절의 音素配列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V

이 구조는 음절이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I, eye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b) V-

이 구조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이다. 다시말해 음절전부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이다. 영어에는 /u/를 제외한 모든 모음이 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c) CV

이 구조는 음절전부에 자음이 하나만 오는 구조이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는 /ŋ/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¹⁵⁾ 다만 학술적으로는 Gimson (1980), 田相範(1985) 등이 지적하듯이 /ʒ/도 외래어에서만 이 위치에 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⁶⁾

d) CCV-

이 구조는 음절전부에 자음이 둘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이다. 왼쪽 자음의 위치에는 /p, t, k, b, d, g, f, θ, s, ʃ, m, n, l, v, n/ 등이 올 수 있고, 오른쪽 자음의 위치에는 /v, l, r, u, p, t, k, m, n, f/ 등이 올 수 있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단어들 중에서 음절전부에 두 개의 자음이 연속되는 예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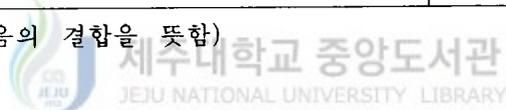
15) 영어의 어두에는 /ŋ/으로 시작되는 낱말이 없으나 어말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16) 그들에 의하면 ʒ는 /l/나 /i/ 앞에 오는 gigue, zhivago 등의 외래어에서만 나타난다.

(6) 음절전부에 올 수 있는 두 자음 결합

$\begin{matrix} C_2 \\ C_1 \end{matrix}$	l	r	j	w	p	t	k	f	v	θ	m	n	example
p	+	+	+										plate, pride, pure
t		+		+									treat, twin
k	+	+	+	+									claim, crowd, cure, quality
b	+	+	+										blood, breath, beauty
d		+		+									draught, dwell
g	+	+		+									glance, grade, Guam* ¹⁷⁾
f	+	+	+										flee, fram, fury
θ		+		+									thrill, thwart*
h			+	+									huge, wheel
s	+			+	+	+	+	+			+	+	slave, switch, speed, stock skill, sphere, smart, snake
ʃ		+											shrub
z													
v			+										view
l													
m			+										
n													musical
tʃ													
dʒ													

(+표시는 두 자음의 결합을 뜻함)



e) CCCV-

이 구조는 音節前部에 3개의 자음이 연속되는 구조다. 맨왼쪽 자음의 위치에는 /s/만이 올 수 있고, 中間子音의 위치에는 無聲破裂音 /p, t, k/중의 어느 하나이고, 오른쪽 자음의 위치에는 /l/, /r/의 流音이나 /j/, /w/의 轉移音 중의 어느 하나가 올 수 있다.

17) 앞으로 *표시는 교과서 외의 서적에서 발췌한 단어임을 나타낸다.

(7) 音節前部에 가능한 세 자음 결합

$C_1C_2 \backslash C_3$	l	r	j	w
sp		spread		
st		strawberry		
sk	sclerosis*	scramble	skew	square

f) -V

이 구조는 음절이 하나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다. 영어에서는 /e/, /æ/, /ʌ/, /a/ 등이 이 위치에 오지 못한다.

g) -VC

이 구조는 音節後部에 자음이 하나 오는 구조를 말한다. 영어에서는 /w/, /j/, /h/ 등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이 위치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외되는 자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일치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Gimson (1980)은 /l, r, h, j, w/가 이 위치에 올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며¹⁸⁾, Trager & Smith (1951)는 /h, w, j/를 제외하는 음으로 기술하는가 하면¹⁹⁾, 田相範 (1985)은 /h/만이 이 위치에 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h) -VCC

이 구조는 音節後部 子音이 두 개 연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왼쪽 자음으로는 /p, t, k, b, d, g, tʃ, dʒ, m, n, ŋ, l, f, v, θ, o, s, z, ʃ, ʒ/ 등이 올 수 있고, 오른쪽 자음으로는 /p, t, k, b, d, g, tʃ, dʒ, m, n, f, v, θ, l, j, dʒ, z, l/가 올 수 있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두 개의 자음결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Alfred C. Gimson,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ndon: Edward Arnold, 1980), p. 246.

19) George L. Trager & Henry L. Smith Jr.,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 3*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1951), p. 49.

20) 田相範, *英語音聲學* (서울: 乙酉文化社, 1985), p. 308.

(8) 音節後部に 가능한 두 자음 결합

	p	t	k	b	d	g	tʃ	j	f	θ	s	ʃ	v	z	ʒ	m	n	l	example
p	+									+	+								adapt, depth, collapse
t										+	+								eighth, stops
k	+										+								attract, perplex
b				+										+					robbed, cabs
d					+					+				+					breadth, adds
g						+								+					hugged, rags
tʃ	+																		stretched
dʒ					+														judged
f	+									+	+								gift, fifth, laughed
θ	+										+								lathed*, baths
s	+	+	+																gasp, coast, task
ʃ	+																		washed
v					+										+				lived, dives
x					+										+				clothed, bathes
z					+														raised
ʒ					+														rouged*
m	+	+			+				+										camp, dreamt, seemed, nymph
n	+				+			+	+		+	+							cent, demand, laugh, new, month, dance
ŋ										+					+				bank, longed, length, rings
l	+	+	+		+		+			+	+	+	+	+	+	+	+	+	gulp, fault, silk, bulb, be- hold, belch*, golf, wealth impulse, welsh*, solve, fills, overwhelm, kiln
r	+	+	+	+	+	+	+			+	+	+	+	+	+		+	+	harp, apart, clerk, herb, bird, berg, research, carf earth, hearse, harsp, curve cars, charm, pattern, curl

i) -VCCC

이 구조는 音節後部に 3개의 자음이 연결되는 구조를 말한다. 音節核에 가장 가까운 자음의 위치에는 /p, t, k, m, n, ŋ, f, s/가 올 수 있고, 中間子音의 위치에는 /p, t, k, b, d, tʃ, dʒ, m, n, v, s, z/가 오고, 맨오른쪽 자음의 위치에는 /s, z, t, d/가 온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3개의 子音結合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9) 音節後部に 가능한 세 자음 결합

C_3C_2	C_1	t	d	s	z
lp		gulped		helps	
lt				faults	
lk		milked			
lf		engulfed		gulps	
lθ				filths	
ls		repulsed			
lb				bulbs	
ld				holds	
ld			indulged		selves
lv			solved		elms
lm			overwhelmed		kilns
ln			kilned		
rt				hearts	
rk		worked		clerks	
rp				corpse	
rtʃ		marched			
rf		surfaced		carps	
rθ		earthed		forths	
rs		forced			
rb			curbed		suburbs
rd					cards
rdʒ			charged		
rm			armed		arms
rn		burnt	turned		earns
rl			curled		curls
rv			starved		
mp		tempt		glimpse	
mf		triumphed		nymphs	
nt		launched		ants	
rdʒ			charged		
rm			armed		arms
rn		burnt	turned		earns
rl			curled		
rv			starved		curls
nt		launched			
nθ				months	
ns		danced			
nd					thousands
ndʒ			arranged		
nz			cleansed		
θk		thanked		links	
nθ				strengths	

C_3C_2 C_1	t	d	s	z
ps	amongst			
pt				
ps	collapsed	scripts		
pθ			depths	
sp	grasped			
st			tests	
sk	asked		desks	
kt			acts	
ks	mixed			
tθ			eights	
dθ			widths	
ft			gifts	
fθ			fifths	

j) -VCCCC

이 구조는 음절후부에 4개의 자음이 연결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형태는 3개의 자음이 연결된 구조에 屈折語尾 /s/와 /t/가 붙어 형성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좋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音節後部内的 4개의 자음이 결합된 단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0) 音節後部に 가능한 네 자음 결합

$C_4C_3C_2$ C_1	t	s	z
lkt		mulcts*	
lf		twelfths	
lts	waltzed*		
rts	quartzed*		
rst		thirsts	
rld			worlds
mpt		tempts	
mps	glimpsed		
kt		instincts	
kst		texts	
ks		sixths	

지금까지 본장에서는 음성상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音節構造와 영어의 音節構造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한국어의 音節構造는 轉移音(G)을 자음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 C₁ G₁ V C₂의 구조를 갖게 되며, 영어의 音節構造는 C₁ V C₂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두 언어의 音節은 그 구조상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學習上的 問題點

한국어와 영어의 音節構造가 이처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音節構造에 익숙한 학생들이 영어의 복잡한 子音群을 받아들일 때 한국어의 音節組織에 맞도록 발음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본장에서는 한국어의 音節構造와는 전혀 다른 영어의 音節構造를 대할 때 고등학생들이 어떤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기로 하겠다.

A. 挿入母音 現象

교사로서 고등학교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의 발음을 가르칠 때 겪는 한 가지 어려움은 학생들이 영어다운 발음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한국어의 음절조직에 맞추어 영어 단어를 발음함으로써 많은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학생들은 이미 한국어의 音節組織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서 영어 단어를 발음할 경우에도 한국어 音節組織에 맞도록 영어 어휘를 分節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分節은 주로 한국어의 挿入母音 /ɪ/에 의한 것이다. 물론 화자에 따라서는 /ɪ/를 삽입하는 자리에 /u/ 또는 /ə/를 삽입하기도 한다.²¹⁾ 한국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의 音節組織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대부분 한국어의 音節組織에 맞추기 위해 /ɪ/모음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주어진 영어 단어를 음절수대로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고 /ɪ/모음을 삽입시켜 많은 음절을 가진 영어 단어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이 영어의 子音群을 발음할 때 /ɪ/를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金淇燮(1977)에 의해 잘 논의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받아들일 때 한국어의 表面音聲制約을

21) 가령 한국인 화자들은 영어 단어 'golf'나 'print'를 각각 (golɸu)나 (purɪntɪ)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경상도 지방의 화자들은 자음 사이에 /ɪ/ 대신 /ə/를 많이 삽입하고 있다.

만족시키기 위해 /ɪ/모음을 CC사이나 뒤에 삽입함으로써 CVC 또는 CV라는 한국어의 음절구조 조건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金淇燮(1977)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오류음에서 볼 수 있는 /ɪ/삽입을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²²⁾

$$(11) \text{ a) } \phi \rightarrow \text{ɪ} / \left[\begin{array}{l} + \text{ con} \\ - \text{ son}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C} \\ \# \end{array} \right\}$$

$$\text{ b) } \phi \rightarrow \text{ɪ} / [+ \text{ son}] - [\text{ɪson}]\#$$

$$\text{ c) } \phi \rightarrow \text{i} / \left[\begin{array}{l} + \text{ strid} \\ + \text{ high}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C} \\ \# \end{array} \right\}$$

위 규칙들은 물론, 주어진 영어 단어들을 올바르게 발음하기 위해 설정된 규칙이 아니라 한국 학생들이 영어 단어들의 음을 틀리게 발음하는 것을 규칙화한 것이다.

규칙 a)는 共鳴性 子音(sonority consonant)인 /l, m, n, ŋ/ 외의 자음과 모든 자음 사이 또는 語末境界表示(#) 앞에 /ɪ/를 삽입하는 규칙이다. 규칙 b)는 sonority consonant가 音節後部를 형성할 때 그 sonority consonant사이에 /ɪ/를 삽입하는 규칙이고, 규칙 c)는 치경구개음(alveopalatal) 뒤에서는 /ɪ/ 대신 /i/를 삽입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12) a)	constant	→	[kánsitanti]
	impact	→	[ɪmpækɪti]
	speed	→	[sɪpi:di]
b)	overwhelm	→	[ouvəhiwélɪm]
	film	→	[fílɪm]
	kiln	→	[kílɪn]

22) Kim, Key Seop, "Phonological Interpretation of Mispronunciation of English Words by Korean Students" (Seoul National Univ. M.A.Thesis, 1977), p. 45.

c)	much	→	[mʌtʃi]
	published	→	[pʌblifitʃi]
	approached	→	[əprətʃitʃi]

이상에서 볼 때 한국 고등학생들은 위 영어 단어들을 대할 때 /i/를 삽입함으로써 원래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音節構造 대신에 한국어의 音節構造에 어울리도록 음절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音節末子音이 齒硬口蓋音(alveoplatal)일 때에는 /i/ 대신에 /i/를 삽입하여 한국어의 音節構造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B. 挿入母音의 特性

한국 고등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습득할 때 다른 모음보다 왜 /i/모음을 주로 삽입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i/모음의 특징을 검토해 봐야 가능해진다. 삽입되는 모음이 어떤 원칙에 의해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언어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삽입되는 모음은 각 언어마다 다르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 화자들은 /ə/를 삽입하고, 일본사람들은 /u/를 삽입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어두에 /e/를 삽입하고 있다.²³⁾ 이같은 사실은 김진우(1982)에 의해 잘 지적되고 있는데, 그는 모음의 삽입은 어떤 보편적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고유의 특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²⁴⁾

삽입모음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Hooper (1976)가 연구한 바 있다. Hooper (1976)는 삽입되는 모음은 脱落母音과 함께 언제나 最小(minimal)母音이며, 母音弱化 過程을 갖는다고 진술하고 있다.²⁵⁾ 이 입장은 삽입모음은 탈락도 용이한 모음임을 말해주고 있다.

23) Kim Chin.W., "Epenthesis & elision in metrical phonology",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 Hanshin Publishing Co. 1982), p. 447.

24) 예를 들어 일본인 화자들은 영어단어 napkin을 [napukin]으로 발음하며 스페인 화자들은 'snob'을 [esnob]로 발음한다. 여러 나라의 화자들의 삽입모음 현상에 대해서는 Hooper (1976)나 김기섭(1980) 등이 자세히 고찰한 바 있다.

25) Joan B. Hooper,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1976), p. 236.

영어의 경우 最小母音은 schwa인 [ə]로, 이 모음은 삽입도 쉬울 뿐만 아니라 탈락도 용이한 모음이다. 다음의 (13)은 [ə]모음이 삽입되는 예이고, (14)는 [ə]가 탈락되는 예이다.²⁶⁾

(13)	elm	[élm]	[éləm]
	film	[fílm]	[fíləm]
	athlete	[æθli:t]	[æθəli:t]
	maple	[méipl]	[méipəl]
	people	[pí:pl]	[pí:pəl]
	sample	[sæmpl]	[sæmpəl]
	able	[éibl]	[éibəl]
	cable	[kéibl]	[kéibəl]
	double	[dÁbl]	[dÁbəl]
	marble	[má:rb]	[má:rbəl]
	noble	[nóubl]	[nóubəl]
	table	[téibl]	[téibəl]
	possible	[pásəbl]	[pásəbəl]
	cycle	[súiki]	[súikəl]
	struggle	[strÁgl]	[strÁgəl]
	parcel	[pá:rs]	[pa:rsəl]
	pencil	[péns]	[pénsəl]
	chasten	[tʃéisn]	[tʃéisən]
	lesson	[lésn]	[lésən]
	listen	[lís]	[lísən]
	moisten	[móisn]	[móisən]

26) 元慶植, 「英語音聲學·音韻論」(서울: 석정출판사, 1990), pp. 229~235.

(14)	chocolate	[tʃókəlɪt]	[tʃoklit]
	family	[fæməli]	[fæmli]
	interested	[ɪntərɪstɪd]	[ɪntrɪstɪd]
	separable	[sépərəbl]	[séprəbl]
	possible	[pásəbli]	[pásbl]
	probably	[prábəbli]	[prábli]
	temperate	[témpərɪt]	[témpɪt]
	university	[ju:nivé:rsəti]	[ju:nivérsti]
	swollen	[swóulən]	[swóuln]
	history	[hístəri]	[hístɪ]
	laboratory	[ləbórətɪ]	[ləbórətɪ]
	victory	[víktəri]	[víktrɪ]
	beckoning	[békənɪŋ]	[béknɪŋ]
	suffering	[sáfəriŋ]	[sáfɪŋ]
	thundering	[θándəriŋ]	[θándɪŋ]
	believe	[belí:v]	[blí:v]
	belong	[belɔŋ]	[blɔŋ]
	police	[pəlís]	[plís]
	parade	[peréid]	[préid]
	suppose	[səpóuz]	[spóuz]
	philosophy	[fələsəfi]	[flásəfi]

이러한 [ə]母音脱落은 그 뒤에 특히 /n/, /l/, /m/, /r/이 올 때 흔히 나타난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인 화자들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발음할 때 /ɪ/ 모음을 자연스럽게 삽입하고 있다.

- a) 같지 : 같으지
- b) 깊지 : 깊으지
- c) 입지 : 입으지
- d) 먹지 : 먹으지
- e) 접지 : 접으지

아울러 다음과 같은 단어들에서는 /i/가 여러 곳에서 탈락하고 있다.

- a) 쓰어 : 써
- b) 프어 : 퍼
- c) 울으면 : 울면
- d) 울으시니 : 우시니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는 영어의 경우와는 달리 /i/모음이 자연스럽게 삽입되기도 하고 탈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의 모국어 화자들(English native speakers)은 /ə/모음을 단어의 여러 위치에 자연스럽게 삽입시키거나 탈락시켜 발음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만 한국어 화자들은 /i/모음을 삽입 또는 탈락시켜 발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의 /i/모음에 대해 최현배(1987)는 /i/음은 발성하기 쉬운 음일 뿐만 아니라, 배우기도 쉬운 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⁷⁾ 발성하기 쉽고 배우기도 용이하다는 것은 삽입모음이 되어도 그 단어의 의미상의 차이는 전혀 초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발음시 부담량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에서 삽입과 탈락을 동시에 하는 /i/모음을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에도 그대로 삽입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배울 때 영어의 音節組織을 국어의 音節組織에 맞도록 하기 위해 삽입과 탈락이 환경에 따라 자주 일어나는 /i/모음을 불필요하게 삽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27)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87).

V. 指導方案

영어 단어를 한국 학생들이 배울 때 음절구조의 차이 때문에 /i/모음을 삽입하고 한국어의 音節組織에 맞도록 영어 어휘를 再分節하는 문제는 영어 발음 교육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져다 준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교사로서 어떤 지도를 해야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지도방안을 필자는 調音音聲學的 지도와 分節法則(syllabification)的 지도로 양분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A. 調音音聲學的 指導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音節構造의 차이로 인해 영어 발음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音節初 子音群과 音節末 子音群이다. 音節初에는 /s/로 시작되는 子音群이 형성될 때 더 많은 문제가 되며 音節末에서는 자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큰 난점을 가져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子音群을 형성하는 자음의 수가 많으나 또는 적으나에 따라 /i/모음을 삽입하는 횟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올바른 영어 발음을 지도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우선 /s/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경우에 따라 앞에 나오는 첫 자음을 발성하기 전에 발성기관은 이미 뒤에 놓인 자음을 발성할 준비가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speed의 발음을 지도할 때 /s/를 발성하기 전에 이미 조음기관은 /p/를 발성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s/와 /p/사이에 모음을 삽입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요구되므로 교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s/로 시작되는 단어를 연습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

먼저 /s/음에 주의를 기울여 그 음을 의식적으로 길게 발음하도록 한다. 예컨대 speed를 [s:pi:d]로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s/ 다음에 불필요한 모음을 삽입하지 않도록 확인시키고, 특히 성대의 진동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길게 발음하는 연습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에는 그 음을 반복 연습시킨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s/로 시작되는 여러 단어에 적용시킨다.

이러한 순서는 Paul & Bruder(1976)나, Prator & Robinett(1985) 등에 의하여 중국어, 이란어, 스페인어를 쓰는 화자들에게 /s/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의 발음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인데, 불필요한 모음을 삽입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어, 스페인어, 이란어 화자들도 다 마찬가지므로, 이같은 지도 방법은 한국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Prator & Robinett(1985)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Pronounce each word, concentrating on the /s/-sound and lengthening it, if necessary, making sure you do not insert a vowel sound before it. Then pronounce the words at a more normal speed.²⁸⁾

이와 비슷하게 이현복(1983)은 한국 학생들은 /s/ 다음에 모음을 삽입하는 현상은 한국어와 영어의 音節構造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고 /s/는 무성음이므로 /s/가 들어 있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려면 우선 /s/를 처음에는 아주 길게, 다음에는 점차 짧게 발음하되 어느 경우에도 성대의 진동이 없도록 연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사실은 Lado & Fries(1961)가 /s/로 시작된 단어의 발음훈련 단계를 [ssstə] → [stə], [ssspə] → [spə], [ssskə] → [skə], [ssslə] → [slə], [ssswə] → [swə]로 잡는 데서도 뒷받침 된다.³⁰⁾

한편 音節末 子音群을 가르칠 때에도 音節前部의 子音群 지도처럼 맨왼쪽의 자음을 개방하기 전에 발성기관은 다음 자음의 발성 위치에 닿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kiln이란 단어를 가르칠 때 /l/음을 발성하기전에 이미 발성기관은 /n/음을 발성할 준비가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音節末 子音群은 屈折語尾인 -ed나 -s가 붙어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이들의 발음은 屈折語尾가 붙지 않는 단어의 맨마지막 음이 有聲音이나 또는 無聲音이나에

28) Clifford C. Prator & Betty W. Robinett *op. cit.*, pp. 183~184.

29) 이현복, "영어 군더더기 모음 첨가", 「말소리」·6(서울: 대한음성학회, 1983), p. 45.

30) Robert Lado & Charles C. Fries, *English Pronuncia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1), p. 154.

따라 결정된다고 확인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ʃt/子音群 지도방법을 Robinett (1972)의 방식³¹⁾에 따라 현장에 대입시켜 보자. 우리는 앞에서 이 子音群이 들어 있는 washed란 단어를 한국 고등학생들이 [wafiti]로 발음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ʃ/가 輕口蓋音이므로 한국 학생들은 /i/모음을 삽입하고 있으며, /t/다음에는 평상시처럼 /ɪ/모음을 삽입하고 있다. 이 불필요한 /i/와 /ɪ/모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도를 해야 한다.

먼저 /ʃ/와 /t/가 개별적으로 들어 있는 음을 연습시킨다. 이를테면 wash two cups란 句를 혼련시킨다. 그리고 나서 /ʃt/ 子音群 다음에 모음이 오는 washed a cup이란 句를 연습시킨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학생들은 /ʃ/ 다음에 오는 /t/음을 마치 그 다음 음절이 시작되는 wash-ta-cups처럼 발음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접하는 자음들과 더불어 washed five cups를 계속 연습시킨다.

音節末 子音群 지도에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자음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음을 모두 다 발음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발음하기 쉽도록 English native speaker들조차도 子音群을 간결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Prator & Robinett (1985)가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Nonnative speakers can profit by some of the ways that are used by native speakers to make clusters more pronounceable.³²⁾

이같은 과정으로 子音群이 간결화되고 있는 단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15) | empty[ém(p)ti] | attempt[ətém(p)t] |
| | jumped[dʒʌm(p)t] | asked[æs(k)t] |
| | thanked[θæŋ(k)t] | ranked[ræŋ(k)t] |
| | anxious[æŋ(k)fəs] | postpone[pous(t)póun] |

31) Christina B. Paulston & Marry N. Bruder,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 Winthrop Publishers), p. 118.

32) Clifford H. Prator & Betty W. Robinett, *op. cit.*, p. 181.

waistcoat[weís(t)kout]	grandfather[græ̀n(d)faðə]
grandson[græn(d)sʌn]	landlord[læ̀n(d)lɔrd]
text[tek(t)s]	glimpsed[glím(p)st]
lifts[lif(t)s]	instincts[ínstɪg(k)ts]
worlds[wə:(r)ldz]	
depths[dep(θ)s]	

영어 화자들은 위 단어들을 발음할 때 () 속에 있는 자음들을 탈락시킴으로써 복잡한 子音群을 한결 간단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발음의 簡潔化 現象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학생들에게 표준영어를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Prator & Robinett(1985)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위 단어들에 서처럼 간결화된 발음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다소 교육을 덜 받은 화자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복잡한 子音群을 가르칠 때 子音群의 일부를 탈락시키도록 지도할 것인지의 문제는 교사에 따라 그 지도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子音群의 발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English native speaker 들도 子音群을 발음할 때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일이 더 필요하다. Bowen(1975) 같은 학자는 子音群의 短縮現象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子音群 때문에 고전하는 학생들에게 모국어 화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라고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The discussion on reductions of consonant clusters is included at this point to illustrate the kinds of phonetic simplification that can occur, which will possibly be an encouragement to the student who may be struggling with clusters, to tell him that native speakers also struggle and solve their problems on a more or less consistent, making allowances for different levels of style.³³⁾

33) Donald J. Bowen, *Patterns of English Pronunciation* (Rowley : New Bury House Publishers, Inc., 1975), p. 152.

그러나 이러한 子音群 簡潔化(simplification of consonant clusters)방법과는 달리 자음군을 발음할 때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음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 화자들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warmth'란 단어를 [p]를 삽입시켜 [wɔ:mpθ]로 발음하고 있다. 다시말해 有聲鼻音인 /m/과 그 다음에 오는 無聲音인 /θ/를 연결시켜 발음할 때 그 중간에 鼻音과 調音點이 같은 破裂音을 삽입한다. 이런 점에서는 이 현상이 同器官的 同化現象(homorganic assimilation)처럼 보이나 삽입의 주된 취지는 분명히 子音群의 발음을 보다 쉽게 하려는 데 있+음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비음 다음에 破裂音 또는 摩擦音이 올 때 다른 破裂音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첨가되는 자음을 侵入子音(Intrusive consonant)라고 하는 바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³⁴⁾

(16) a. [m] 뒤에서 [p]의 예

warmth[wɔ:m(p)θ], something[sʌm(p)θɪŋ], dream [drem(p)t]

b. [n] 뒤에서 [t], [d]의 예

fence[fen(t)s],	dance[dæn(t)s]
chance[tʃæn(t)s],	essence[esn(t)s]
expense[ɪkspen(t)s],	presence[prezn(t)s]
month[mʌn(t)s],	tenth[ten(t)θ]
patience[peɪʃən(t)s],	fans[æn(d)z]
sins[sɪn(d)z],	fins[fin(d)z]

c. [ŋ] 뒤에서 [k]의 예

length[leŋ(k)θ], strength[streŋ(k)θ]

B. 分節法 指導

영어를 학습대상어로 하는 한국 학생들이 정확한 영어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34) 梁東暉, *op. cit.*, pp. 187~188.

영어의 分節法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영어 단어내의 정확한 分節原則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어 단어를 발음하게 되면 /i/ 모음이 삽입되어 한국어식 영어 발음이 생기므로 발음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 단어를 어떻게 분절하여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음성학자인 Jones(1937)도 지적한 바 있지만³⁵⁾, 分節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학습자가 영어 단어를 발음하게 되면 그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영어답지 못한 어색한 발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정확한 分節法에 대한 이해는 정확한 강세 음조 습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발음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어의 낱말을 음절로 나눌 때에는 음성에 기반을 둔 分節法則과 단순히 철자에 기반을 둔 分節法則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分節法則은 주로 영어의 音韻現象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발음에 근거한 법칙이며, 후자의 音節法則은 음성적 고려는 전혀 없이 단지 분절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칙이다. 이 두 법칙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기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아야 할 문제다. 더구나 발음과 철자와의 차이가 심한 것이 현대 영어의 속성임을 고려할 때 이 두 分節法은 발음지도는 물론 typing, 작문 지도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먼저 音聲의 分節法則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영어의 2음절 이상의 단어를 분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강세가 있는 單母音이 音節核 위치에 오고, 그 뒤에 자음이 오게 될 때 그 자음은 單母音과 음성적으로 비교적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음절에 오도록 분절한다. 바꿔 말해 강세가 있는 弛緩母音(tax vowel)은 뒤따르는 자음과 음성적으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 이들 사이는 분절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nationalism, salad, weapon, packet, radish 등은 nation-al-ism, sal-ad, weop-on, pack-et, rad-ish 로 각각 분절된다.

35) Daniel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Hoffer & Sons, 1957), p. 328.

둘째, 音節核 위치에 長母音이나 二重母音이 나올 경우 그 다음의 자음은 음성적으로 音節核音과 밀접한 결합을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자음은 그 다음에 오는 모음과 같은 음절에 속하도록 분절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과서의 cobalt, hatred, hydrogen, dynamite, labor, native 등은 이 법칙에 따라 co-balt, ha-tred, hy-dro-gen, dy-na-mite, la-bor, na-tive로 발음된다.

셋째, 音節核 위치에 약모음이 올 때, 그 다음에 오는 자음은 이 약모음과 결합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에 오는 모음에 속하도록 분절한다. 예를 들어 aboard, refer, behold, polite, amount 등은 a-board, re-fer, be-hold, a-mount 등으로 분절된다.

이와 같은 音學的 分節法則이 학생들에게 주는 학습상의 기대효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 학생들은 이 分節法則에 의해 정확한 음절수를 알 수 있게 된다. 바꿔 말하면 영어 단어를 우리말의 음절구조대로 발음하지 않고, 영어 단어의 음절수대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영어의 정확한 音節現象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 올바른 발음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가령 명사인 record와 동사인 record는 각각 rec-ord와 re-cord로 분절되는데, 이 경우 [k] 발음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分節法을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즉, 명사의 경우 [k]음은 音節後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때의 [k]음은 非開放性(unreleased)을 지니게 되지만, 동사의 경우 [k]음은 音節前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때의 [k]음은 氣息音을 동반한 [kʰ]음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점을 잘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철자에 기반을 둔 분절법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綴字上 分節法의 내용은 Webster(1976)사전³⁶⁾의 分節規則과 규약 속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 원칙에 따르되 비교적 간결하다고 생각되는 分節原則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어떻게 분절해야 되는 지에 중점을 두고 그 分節方法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3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G. & C. Merriam Co. Publishers, 1976), pp. 19~20.

첫째, 동일한 두 자음이 연속되어 있을 때는 그 중간에서 分節한다. 예를 들어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Buddhism, bullet, collar, commit, abbey, attract 등은 Bud-dhism, bul-let, col-lar, com-mit, ab-bey, at-tract으로 分節한다. 그러나 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개의 상이한 문자가 연속되어 한 개의 음가를 나타낼 때는 그 중간에서 분절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pitcher, father, gadget, pathway 등은 pitc-her나 fat-her, gad-get, pat-hway로 分節해서는 안된다.

둘째, 母音字가 둘 연속되어 있을 때 그들이 이중모음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분절한다. 이 원칙은 두 모음이 연속되어 음절이 구분될 때에는 그 두 모음 사이를 분절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dial, studio, theater, poet 등은 di-al, stu-di-o, the-a-ter, po-et로 분절하면 된다.

셋째, -tion (-ʃən), -cial (ʃəl), -gion (dʒə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음절이 되도록 분절한다. 예를 들어, nation, special, artificial, religion 등은 na-tion, spe-cial, ar-ti-fi-cial, re-li-gion으로 분절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音聲의 分節원칙에 위배되므로 強勢現象을 고려하여 발음을 지도하되 철자상의 분절법칙을 따를 경우에도 그 단어가 음성상의 分節法則에서처럼 음절의 수는 변화가 없다고 환기시켜 주면 된다.³⁷⁾

넷째, 成節的 子音 (syllabic consonant)을 포함하는 단어에서라도 綴字上으로 모음이 두 개 오지 않으면 분절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prism, rhythm 등은 發音上으로 2음절어지만, 綴字上으로는 분절하지 않는다.

다섯째, 複合語 (compound Word)의 경우 두 단어 사이를 분절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birthday, steamboat, shipyard 등은 birth-day, steam-boat, ship-yard 등으로 분절한다.

여섯째, 派生語 (derivation)의 경우에는 接頭辭나 接尾辭를 語根 (root)로부터 분절한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音節後部 接尾辭 -ed의 경우 그 앞에서 분절한다. 예를 들어 smoker, weakness, unfair, enrich, restrain 등은 smok-er,

37) 小栗敬三(1958)에 의하면 spe-cial, con-di-tion, pre-cious, cou-ple, tri-ple 등은 이 원칙의 예외로 취급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성적 분절법과 철자상의 분절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小栗敬三, 「英米發音と 綴字の 研究」(東京: 篠崎書林), p. 103.

weak-ness, un-fair, en-rich, re-strain과 같이 分節한다.

일곱째, 철자 x는 [ks] 또는 [gz]로 발음되지만 중간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선행모음과 같이 分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extend, explanation, exact, examine 등은 ex-tend, ex-pla-na-tion, ex-act, ex-am-ine과 같이 分節된다.

여덟째, -ng로 끝나는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의 경우는 -g 다음에서 분절한다. 예를 들어 longer, longest, stronger 등은 long-er, long-est, strong-er로 분절한다.

아홉째, 3개 이상의 자음이 모음 사이에 올 때, 앞의 모음의 속성에 관계없이 적어도 하나는 앞의 모음과 함께 분절한다. 만약 세 자음중 中間 子音과 마지막 자음이 영어의 가능한 子音群이 아닌 때에는 첫 두 자음을 앞의 모음과 함께 분절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explore, extricate 등은 ex-plore, ex-tri-cate로 분절한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영어의 音節構造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발음상의 문제점을 調音音聲學的 측면과 分節法的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영어의 자음군 발음시 한국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t/ 모음을 삽입시키는 문제는 앞서 제시한 調音的 지도로써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強勢와 억양 등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때 영어의 분절법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정확한 발음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분절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원래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음절수대로 발음하게 되어, 한국어 음절구조 형식에 맞춰 불필요하게 모음이 삽입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IV. 結 論

이상에서 본고는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조직을 비교하고 두 언어의 음절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영어발음상의 문제점과 그 지도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한국어와 영어는 음절구조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는 음성적 차원에서는 자음군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지만, 영어에서는 음절전부에는 자음이 3개, 음절후부에는 자음이 4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나타내면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C_0VC_0 로 나타낼 수 있고 영어의 음절구조는 $C_0^3VC_0^4$ 이 된다.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조직이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한국어의 음절조직에 익숙해진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새로운 음절조직을 접하게 될 때 발음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인 학습자는 영어의 음절구조를 한국어식으로 재분절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영어의 자음군을 발음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자음군을 한국어식 음절구조로 재분절할 때 불필요하게 삽입시키는 모음이 바로 /ɪ/ 모음이다. 이 /ɪ/ 모음은 삽입도 쉽고 탈락도 쉬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영어 단어를 배울 때 불가피하게 /ɪ/모음을 삽입시켜 자음군 발음을 쉽게 한다 할지라도 영어 교육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어만이 갖는 독특한 음절구조를 /ɪ/모음을 삽입시켜 한국어식 음절구조로 再分節하는 그 자체가 그릇된 영어 발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영어 발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본고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첫째는 調音音聲學的 指導로서 /ɪ/모음 삽입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 지도 방법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지도 방법은 /s/로 시작되는 音節前部 子音群과 또 복잡하게 형성되는 音節後部 子音群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데 'spee'와 'washed'의 /sp/, /ft/의 발음지도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p/의 경우, 먼저 성대가 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s/음을 의식적으로 길게 내도록 한다(이때 /i/모음이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어서 차츰 정상속도로 연습을 시키다가 이 과정이 숙달되면 /s/로 시작되는 다른 여러 단어에 적용시켜 나간다.

한편, /ft/는 먼저 /f/와 /t/가 개별적으로 들어 있는 음, 예를 들면 'wash two cups'와 같은 구를 훈련시킨다. 이어 /ft/자음군 다음에 모음이 오는 'wash a cup'이란 구를 연습시킨다. 끝으로 wash five cups를 계속 연습시켜 나간다.

이밖에 音節末 子音群 지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子音群 簡潔化가 있다. 이 방법은 자음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음을 전부 다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음하기 쉽도록 어느 한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子音群 簡潔化 方法은 교육을 덜 받은 화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여 가르쳐서는 안된다.

다시 하나 덧붙일 것은 자음군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English native speaker들은 비음 [m, n, ŋ]다음에 [p, t] 혹은 [d, k]를 삽입하여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warmth[wɔ:rmθ]를 [wɔ:rmpθ]처럼 [p]를 첨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은 그 두번째 방법으로 강세 및 음운 습득의 기초가 되는 분절법상의 지도 방안이다. 여기에는 音聲的 分節法과 綴字上의 分節 원칙이 포함된다.

음성적 분절법에는 3가지 원칙이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세가 있는 弛緩母音(lax vowel)과 뒤따르는 자음 사이에서는 분절되지 않는다.

둘째, 음절핵 위치에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이 나올 경우 그 다음의 자음은 뒤에 오는 모음과 같은 음절에 속하도록 분절한다.

셋째, 음절핵 위치에 약모음이 올 때 그 뒤에 오는 자음은 다음에 오는 모음과 분절한다.

철자상의 분절법에는 다음 9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동일한 두 자음이 연속되어 있을 때는 그 중간에서 분절한다. 그러나

연속하는 두 자음이지만 음가가 하나일 때에는 분절해서는 안된다.

둘째, 모음이 둘 연속되어 있을 경우 그들이 이중모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이를 분절한다.

셋째, -tion, -cial, -gion 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음절이 되도록 분절한다.

넷째, 成節的 子音(syllabic consonant)을 포함하는 단어에서도 철자상으로 모음이 두 개 오지 않으면 분절하지 않는다.

다섯째, 복합어는 그 사이를 분절한다.

여섯째, 派生語의 경우, 接頭辭와 接尾辭를 語根으로부터 분절한다.

일곱째, 철자 x는 발음이 [gz] 또는 [ks]로 나지만 끊을 수 없으므로 선행모음과 함께 분절한다.

여덟째, -ng로 끝나는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의 경우는 -g 다음에서 분절한다.

아홉째, 3개 이상의 자음이 모음 사이에 올 때 앞의 모음의 속성에 관계없이 적어도 하나는 앞의 모음과 함께 분절한다.

이상 논한 것을 종합할 때 영어의 자음군 발음시 한국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r/모음을 삽입시키는 문제는 調音的인 지도로써도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나, 강세 억양 등과 관련된 여러 현상은 분절법에 기반을 둔 音韻的 지도가 병행되어야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전자가 실제에 중점을 둔 지도방안이라면 후자는 비교적 이론을 중시한 음절 지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영어 단어가 한국 학생들에게 정확히 습득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본고에서 다룬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가르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淇燮, “外來語의 插入母音攷”, 「한국영어영문학회·75」, 1980.
- 金鍾勳, 英語의 音節과 그 構造, 고려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민영빈외 2인, High School English I·II·III, 시사영어사, 1987.
- 梁東暉, 「英語音聲學」, 서울:汎韓書籍, 1986.
- 宋哲儀, “국어의 音節問題와 子音의 分布制約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7」, 1982.
- 元慶植, 英語音聲學, 音韻論, 서울:석정출판사, 1986.
- 이현복, “영어 군더더기 모음 첨가”, 「말소리」·6, 대한음성학회, 1983.
- 田相範, 「英語音聲學」, 서울:을유문화사, 1985.
-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정음사, 1987.
- 許 雄, 「國語音韻學」, 서울:정음사, 1987.
- 小栗敬三, 「英米發音 綴字 研究」, 東京:條崎書林, 1958.
- Banthy, B. et al.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6.
- Bloch, B. and Trager, G.L.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42.
- Bowen J. Donald. *Patterns of English Pronunciation*, Rowley: Newburry House Publishers, Inc., 1975.
- Chin W. Kim. “Epenthesis and elision in metrical phonology”,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gn calm*, Seoul: Hanshin Publishing Co., 1982.
- Fries, C. Charles.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5.
- Gimson, A. C.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ndon: Edward

- Arnold, 1980.
- Hooper, J. B.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1976.
- John, A. "What consonant clusters are possible?", *Word*, 9, 1978.
- Jones, D.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 Hoffer & Sons Ltd., 1957.
- Kong-On Kim & Masayoshi Shibatani "Syllabication Phenomena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2.1, 1976.
- Lado, R. & Fries, C.C. *English Pronunciation*,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 Lado, R. *Linguistics Across Culture*,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O'Connor, J.D. *Phonetics*,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Ltd., 1957.
- Paulston, C.B. & Bruder, M.H.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 Winthrop Publishers, 1976.
- Prator, C.H. & Robinett, B.W.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5.
- Robinett, B. Wallace. "Simple Classroom Techniques for Teaching Pronunciation", in Croft, ed., *Reading a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ambridge, Massavhusetts : Winthrop Publishers, 1972.
- Trager, G.G., & Smith Jr., H.L.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3,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1951.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 G. & C. Merriam Co. Publishers, 1976.
- Young Key Kim-Renaud. "The Syllable in Korean Phonology", 197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yllable structures of Korean and English

Son You-Won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n-Tae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the syllable structures of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on the contrastive analysis theory, to sort out major problems of Korean speakers in learning English, and to present effective methods of overcoming such learning problems.

There is a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syllable structures of the two languages. Korean has no consonant clusters at phonetic levels, while English permits from one to three consonants in an initial position, and from one to four in a final position. Accordingly, Korean syllable structure can be formulated as $C_0^1VC_0^1$, and English syllable structure as $C_0^3VC_0^4$.

Hence, Korean speakers who are learning English, as they have been habituated to Korean syllable structure, have great difficulty in pronouncing English words with different syllable structures from those of Korean.

To overcome this difficulty, Korean students are apt to resyllabicate English words into ones with a syllable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Korean. Such a tendency to resyllabicate English words is very common in pronouncing English consonant clusters.

It is the vowel /ɨ/ that plays a decisive role in resyllabication. It is an incorrect and unnatural pronunciation, however, that Korean students insert /ɨ/ to pronounce English consonant clusters more easily. It is because the resyllabication makes consonant clusters lose their unique syllabic structures.

This thesis presents two ideas of preventing Korean students from mispronouncing English consonant clusters caused by /ɨ/ insertion—articulatory phonetic teaching method, and phonological teaching method. The former can be said to be a practical way to avoid inserting /ɨ/; the latter can be used as basic knowledge of stress and intonation learning. Besides the two above-mentioned methods, two other ways to help pronounce English consonant clusters are shown in this thesis. One is to simplify consonant clusters, and the other is to insert intrusive consonants.

In conclusion, we English teachers should make an effort to develop a practical teaching method,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knowledge presented in this thesis.

